

“소위 전북가야는 실체 없는 허구”

진안문화원, 진안문화 통권 제30호에 ‘전북 가야론’ 전면 비판 글 실어

진안문화원(원장 우덕희)은 16일 오전 11시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소위 전북가야는 실체 없는 허구’라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이날 우덕희 원장, 최규영 진안향토사 연구소장 이상훈 부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그동안 가야문화연구소(이하 가문연)가 전북 동부지방이 가야권이라고 주장해왔던 첫 번째 핵심 논거인 가야 제철 유적이 전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허위로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가문연은 애초부터 근거가 불확실한 전북지역 제철 유적 218개소를 가야 제철 유적이라고 연구프로젝트를 통하여 전북도에 제시하였으나,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예산으로 발굴된 조사에서 한군데에서도 가야 시대 제철 유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진안문화’에 실린 글에서 밝히고 있다.

따라서 가문연이 장수 가야가 제철 유적을 감시하기 위하여 120개소 봉수대로 여덟 갈래의 봉수망을 운용했다는 주장도 제철 유적이 모두 허구로 드러남에 따라 그 논거를 잃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진안문화원 발행 진안문화 통권 제30호.

또한, 가문연이 주장하는 봉수대 역시 가야 시대 봉수대로 특징지를 갖춘 한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봉수라 할 수 없는 유령 봉수이고, 그나마 중기에 더 높은 등성이에 막혀 장수지방과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여러 증거를 들어 비판하고 있다.

장수군이 가야 시대에 존재했던 반파국(伴波國)이었다는 가문연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장

수군이 반파국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들었는데, 장수는 입지상으로 당시 인구가 농토가 적어 군사적 강국이 될 여건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비하는 봉수로 운용할 수도 없고, 신라를 침략할 수도 없는 위치라는 점을 들어 가문연 측의 반파국 설을 일축하고 있다.

‘진안문화’에는 이밖에도 봉수전문가 김주홍 박사의 ‘전북 동부지역 봉수 고찰’과 이상훈 문화원 부원장의 ‘소위 전북가야, 장수가야에 대하여’라는 글이 실려 가문연 측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수년간 전북은 ‘지붕 없는 가야박물관’이라는 가문연 측의 광고문구가 언론을 뒤덮은 데다 ‘전북 가야’ 설은 우리나라 삼국시대 역사를 뒤엎는 엄청난 일이라 학계에서나 시중에서나 비상한 관심을 끌어들였는데 이번 진안문화원에서 발행하는 ‘진안문화 통권 제30호’에는 그간 군산대학교가야문화연구소에서 전북 동부지방이 한때 가야권이었던 ‘전북 가야론’에 대해 전면 비판하는 글 3편을 실었다.

한편 진안문화원에서 발행하는 ‘진안문화 통권 제30호’에는 그간 군산대학교가야문화연구소에서 전북 동부지방이 한때 가야권이었던 ‘전북 가야론’에 대해 전면 비판하는 글 3편을 실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대 박재영 교수, ‘116번가’ 국내 첫 번역출간

미국 최초 밀리언셀러 흑인 여성 작가 앤 피트리 소설

전북대학교 박재영 교수(영어교육과)가 미국 최초의 밀리언셀러 흑인 여성 작가인 앤 피트리(ANN PETRY, 1908-1997)의 소설 ‘116번가’를 국내 처음으로 번역 출간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2019년 제시 레드먼 포셋의 소설 ‘플러툼’과 2020년 폴리처상 수상작가인 앨런 글래스코의 ‘플러툼’, 2021년 윌키 콜린스의 ‘이세벨의 딸’ 등을 소개한 바 있다.

작가에 따르면 아름다운 미모를 지닌 흑인 싱글맘의 현실 이야기를 담고 있는 ‘116번가’는 1940년대 뉴욕 맨해튼 북부에 위치한 흑인 거주구를 배경으로, 빈곤과 인종 차별을 벗어나는 꿈을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 ‘루티’의 삶을 통해 당시 혼돈이었던 미국 사회의 속살을 드러내 보인다.

작품 속 루티의 현실은 뉴욕 할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의 현실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제 돈으로 집을 마련하는 것은 녹록치 않지만 우리네 청춘들도 루티처럼 꿈을 꾸다, 게다가 루티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감내해야 한다. 우리 역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면서 타민족에 대한 배타적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이 작품은 1946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된 소설로 앤 피트리의 데뷔 작품이다. 출간 당시 백만 부 이상 팔려 나갔고, 피트

리는 흑인 여성 작가로서는 최초로 밀리언 셀러가 됐다.

박재영 교수는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오랫동안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던 다른 성에 대한 배려와 관심, 그리고 공정의 치유가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 독자들이 이 작품을 통해 생각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에서 학부와 석·박사 통합과정을 공부하고 영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북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은성 기자

‘예술로 green 전주’ 온라인 포럼

전주문화재단, 오늘 유튜브 생중계

(재)전주문화재단은 문화·예술 기반의 ‘예술로 green 전주’ 포럼을 17일 재단 온라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예술로 green 전주’는 전북대학교와 전주문화재단이 공동 기획한 사업으로, 지역 환경문제의 문화예술적 접근에 대해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과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축해 환경문제에 관한 진지한 담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 및 지역 주요 현안인 환경 이슈에

대한 문화·예술적 접근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문제 해결의 문화적 전환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에 대한 문화예술적 접근’을 주제로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문화 예술적 접근으로 실천방안을 찾고, 기후위기 시대의 문화 예술적 대응과 중앙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및 친환경적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대형 대표(ΔH zone)의 ‘팬데믹 시대의 협업:인간-기술-자연-미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섹션1에서는 지역 환경문제의 문화 예술적 접근, 섹션2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적 대응에 대한 주제발표와 사례발표가 진행된다.

전북대학교 정용재 기획처장은 “지역 환경문제의 문화 예술적 접근과 기후위기 시대 예술적 대응을 담은 포럼을 통해 우리가 모두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자”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효성 높은 환경정책 개발의 든든한 교두보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백옥선 대표(이시)는 “포럼으로 지역 환경문제를 문화예술적으로 접근해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예술의 사회공헌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문화예술을 통해 지구를 지키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혼불기념사업회·최명희문학관, ‘소살소살 혼불 토크아보기’ 참가자 모집

혼불기념사업회와 최명희문학관이 ‘소살소살 혼불 토크아보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열 권 분량인 소설 ‘혼불’의 완독을 돕기 위해 매년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각 권의 특징을 주제로 강연을 듣고 참가자들이 작품을 낭독하며 감상을 나누는 시간이다.

올해는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20분) 총 13회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강연과 함께 ‘혼불’의 배경지이자 작가가 나고 자란 전주한옥마을 일대를 돌



아보는 문화기행과 ‘생각수첩’ 만들기, 1년 뒤 나에게 쓰는 편지, 가뭄놀이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또한 천연염색 장인을 초청해 혼불 4권에 등장하는 전통 염료 제조법

과 염색 과정에 대해 배우고, 직접 쪽물을 들이는 시간도 준비됐다.

강사 이진숙(수필가) 씨는 “‘혼불’을 구석구석 살피다 보면 책에 묘사된 조상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지혜가 언어나다”며 “소설을 함께 읽으며 생각의 폭을 넓히고, 따뜻한 위로를 얻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3월 1~5일까지이며, 우선 접수자 20명을 모집한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84-0670)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박물관, 기증 유물 특별전 개최

전북대학교 박물관(관장 홍찬석)이 61년의 역사와 함께 한 기증 유물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전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모든 기증자들의 숭고한 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기 위해서다.

이번 특별전은 지난 15일부터 박물관 2층 기증유물관에서 열리고 있다.

전북대 박물관에 따르면 106명이 기증한 2,500여 점의 유물이 소장돼 있다. 이번 특별전에는 188점의 유물이 공개된다. 한정된 전시 공간과 진열장의 부족으로 더 많은 유물이 소개될 수 없지만 모든 기증자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수많은 기증 유물들은 모습도, 크기도, 시대도 서로 다르지만, 기증자들의 숭고한 마음만은 같기 때문이다.

특별전에서는 최규상·이규진·권갑석·이용선생의 서예, 나상목·송수남·한소희·송계일·김연익 작가의 그림, 그리고 무형문화재 최순순·김혜미자·김동식 선생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전북 유학자들이 공부하던 책들과 이재환윤석의 ‘이재유고’를 찍었던 목판들도 직접 볼 수 있다.

홍찬석 관장은 “박물관은 기증 유물 특별전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모든 기증 유물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모든 기증자 분들께 감사 드리며, 특별전을 통해 기증자의 숭고한 마음이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